

양고기일일시장뉴스 (2026.10.14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호주 / 뉴질랜드

오늘의 핵심

- 1. 호주 동부 양 시장은 10/12~13 출하가 크게 늘었는데도 가공업체·비육업체 경쟁으로 강세였습니다. 발라랏 양 출하는 11,271두(+5,135)였고, 양은 1,170~1,270¢/kg에 거래됐습니다.
- 2. 호주 무역용 양 지표(NTLI)는 10/9 주간 1,153¢/kg(+5%), 머튼 지표는 829¢/kg(+3%)입니다. 남호주 JBS는 서호주 산 신규 시즌 양을 A\$11.20/kg에 구매 공고했습니다.
- 3. 미국 ITC의 수입 양고기 피해 판정은 11/13까지 나옵니다. 하원의원 68명이 수입 규제 지지 서한에 서명해 관세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.
- 4. 뉴질랜드 양 스케줄(17.5kg YX)은 10/12 기준 북섬 NZ\$209, 남섬 NZ\$206으로 보합이며, 1년 전보다 17% 높습니다.
- 5.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10/13 67.32위안/kg으로 전일보다 1.3% 올라 반등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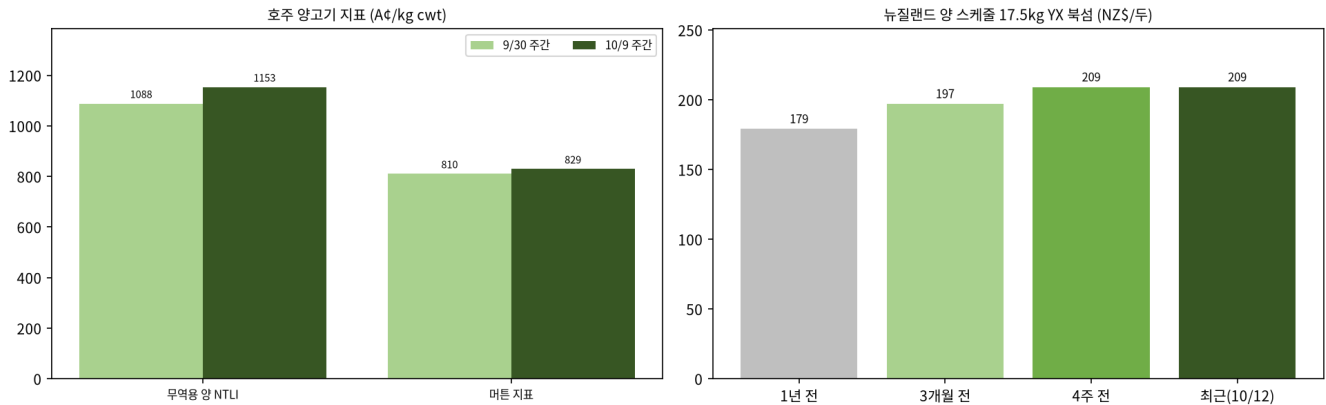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산지 경매가, 가공업체 스케줄, 가격지수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	무역용 양 지표 NTLI (10/9 주간)	1,153 A¢/kg cwt	전주 +5%	MLA 주간 현황
호주	머튼 지표 (10/9 주간)	829 A¢/kg cwt	전주 +3%	MLA 주간 현황
호주	NTLI (9/30 주간, ABARES)	1,088 A¢/kg cwt	전년 -8%	ABARES
호주	발라랏 양 평균 (10/9 주간)	1,226 A¢/kg cwt	-	MLA 주간 현황
호주	AuctionsPlus 재입식 양 지표 ARLI (10/7 주간)	1,329 A¢/kg cwt	-10¢	AuctionsPlus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북섬 (10/12)	NZ\$209/두	4주 전 209, 1년 전 179	interest.co.nz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남섬 (10/12)	NZ\$206/두	4주 전 205, 1년 전 176	interest.co.nz
호주	발라랏 양 (10/13)	1,170~1,270 A¢/kg cwt	경량·중량 두당 +5~10달러	Agora(CVLX 발라랏)
호주	벤디고 무역·중량 양 (10/12)	1,100~1,180 A¢/kg cwt	전체 평균 두당 A\$267(+5)	Agora(벤디고)
호주	JBS 남호주 신규 시즌 양 구매가 (서호주산)	A\$11.20/kg HSCW	-	Agora Marketplace
호주	양 가격 (MLA, 10/10)	11.53 AUD/kg	0.0%	agri.markets(MLA)
중국	양고기 도매 평균 (10/13)	67.32 CNY/kg	전일 +1.3%	NetEase(농업농촌부)
뉴질랜드	대미 양고기 관세 (현행)	13.2%	인상 여부 ITC 심사 중	Farmers Weekly NZ
뉴질랜드	Westpac 양고기 가격지수 (10/7)	686	12월 681 전망	Westpac Agri Bites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양고기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ABARES, MLA 주간 사항, interest.co.nz

국가별 주요 뉴스

호주

- 10/12 NSW·빅토리아 양 시장은 출하가 크게 늘었는데도 가공업체·비육업체 경쟁으로 양·머튼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. [Agora 양 시장 요약](#)
- 10/13 발라랏은 출하가 16,675두(+6,058)로 늘었고, 신규 시즌 양 약 8,500두가 나왔습니다. 경량·중량 무역용 양은 두당 5~10달러, 중량 크로스브레드 머튼은 최대 20달러 올랐습니다. [Agora\(CVLX 발라랏\)](#)
- 10/12 벤디고에서는 26kg 이상 중량 양과 30kg 이상 수출 등급 수요가 가장 강했고, 머튼은 780~950¢/kg이었습니다. [Agora\(벤디고\)](#)
- NSW 양 시장은 강세입니다. 10/9 그리피스에서는 매수 수요가 강해 전 등급이 올랐고, 10/8 와가에서는 출하가 크게 늘었는데도 재입식·가공업체 경쟁이 활발했습니다. ([Agora Livestock](#))
- 서호주 양값은 주간 도축이 5만 두에 가까울 만큼 출하가 많아 계속 압박을 받고 있으며, 출하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(10/10). ([Ground News\(The West Australian\)](#))
- 미국은 15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양고기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, 호주 업계는 ITC 정식 절차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([Ground News](#))

뉴질랜드

- 호주·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 규제를 지지하는 서한에 미국 하원의원 68명이 서명했습니다. 작년 조사 요청 서한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. Greenstone Meats는 워싱턴 로비 업체를 고용했습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- 뉴질랜드육류산업협회(MIA)는 워싱턴 ITC 공청회에 참석해, 미국 경제학자를 고용하는 등 관세 인상 반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- ITC가 피해를 인정하면 12월 1일까지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고,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뒤 60일 안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- 미국 양 산업은 미국 내 소비에서 국산 비중이 30%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- Westpac은 양고기 수출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 근처라고 평가했습니다. ([Westpac Agri Bites](#))

참고: 경쟁 공급국

- 우루과이의 1~9월 양고기 수출은 약 650만 kg으로 18% 줄었습니다(우루과이 양모청). ([World Beef Report](#)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미국의 관세 인상 판정(11/13 전후)이 4분기 최대 변수이고, 미국 의회의 압박까지 커져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관세가 오르면 호주·뉴질랜드산 대미 물량이 아시아로 돌아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, 대량 계약은 판정 뒤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물량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호주산: 신규 시즌 양 출하가 늘기 시작했지만 가공업체 경쟁이 강해 동부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. NSW 등 동부는 강세이지만 서호주는 출하가 많아 약세여서, 서호주산 물량 위주로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.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10/13 반등했지만 주간으로는 약세여서, 중국 수요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.
- 뉴질랜드산: 스케줄이 전년 대비 17% 높고 수출가격도 최고 수준이라, 관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세 오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

한 줄 요약

미국 ITC의 양고기 관세 판정(11/13)을 앞두고 호주·뉴질랜드산 가격은 강세지만, 판정 뒤 아시아로 물량이 돌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시기를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.